

히라도, 나가사키, 아리마에 퍼져나간 그리스도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가고시마에 도착한 후 교(지금의 교토)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히라도와 야마구치에서의 포교 활동을 통해 수많은 신자를 확보했다. 이후 하비에르에 이어 다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점차 확대되었다.

1550년, 포르투갈 선박의 히라도 내항을 계기로 남만 무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포르투갈 간 무역이 시작되었다. 나가사키 지방은 일본의 동아시아 무역에 있어 입구에 해당하는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포르투갈 선박이 입항하게 되었고, 이들 선박은 화물뿐 아니라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일본을 찾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히라도, 나가사키, 아리마와 같은 무역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인들은 처음 접하는 서양 문화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배우면서 차츰 종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